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리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발행·편집인: 안 강 태  
발행처: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든 O/T 411호  
Tel:(051)245-7551~3 / FAX:245-7550  
인쇄처: (주)동방인쇄  
Tel:(051)636-9477 / FAX:636-9478

# 3월 28일 제45차 정기총회 개최 예정

- 제31대 회장선출, 동문 돕기 지원 관련 예산 편성
- '용마의 밤' 행사 효율적 개선 방안 등 토의 예정

본부 동창회는 2007년 결산보고와 2008년 예산안을 비롯한 주요의제를 의결하기 위해 제45차 정기총회를 오는 3월 28일(금) 코모도호텔 총무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본부 2007년 결산 및 2008년 예산안 승인 통과 외에 (재)용마장학회 예·결산보고와 제31대 회장선출이 있으며, 예산안과 관련하여 동문 돕기 지원 관련 자금 확보와 '용마의 밤' 행사의 효율적인 개선방안 등을 회장단 회의와 이사회에서 토의된 내용을 가지고 심의할 계획이다.

### ■결산이사회는 3월 20일 개최 예정

이에 앞서 3월 20일(목) 결산이사회를 개최, 정기총회에 상정할 결산보고, 예산안을 위시한 주요의제에 대하여 심의를 한다. 그리고 정기 총회에서 수여하는 용마 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후보 심사 위원회와 용마 장학회 이사회, 본부 임원단 회의 등을 2월 중순부터 차례로 개최할 계획이다. 안강태 본부 회장(11회·대선조선(주) 대표이사)은 본부의 올해 운영 방향을 예년과 같이 용마

가족의 화합과 결속을 도모하는 각종 행사를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고, 행동으로 동참하는 동창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진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신임 회장이 선출되면 보고와 동창회 발전을 위하여 앞으로도 적극 협조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 ■용마산악회 3월 9일 거제 계룡산 등

본부의 올해 주요 행사 계획안에 따르면 3월 9일 용마산악회의 제1차 산행이 있으며 4월 말~5월 중순에는 모교방문 행사(20~50주년 기념)를 치른다. 기별대항으로 펼쳐지는 행사는 6월 말 바둑대회, 10월 초순 야구대회, 10월 중순 골프대회, 11월 중순 용마등산대회 등이 기다리고 있다.



서예가 박종문(10회) 새해 휘호

서예가 석파(石芭) 박종문 동문(10회)이 국내외 용마가족의 건승을 기원하며 휘호를 보내왔다. 휘호의 원문은 '如意吉祥(여의길상)'으로 '항상 길하고 상서로운 좋은 일들은 자기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말로서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이다.

## 2008년 본부 동창회 운영 계획

구분	제 목	일 정	장 소	내 용
상 반 기	용마장학회 이사회	2월4일(월)	대어초밥	'07 결산·'08 예산안 승인
	모교 졸업식	경남중 2/20·경남고 2/21	학교 체육관	경남중 제65회·경남고 제62회
	모교 입학식	경남중·경남고 3/4	학교 운동장	경남중 제68회·경남고 제65회
	용마대상 심사위원회	3월 초	본부사무국	용마 대상 수상자 선정
	고문·회장단 회의(1차)	3월18일(화)	대어초밥	주요 회무 보고·현안 논의
	본부 이사회(1차)	3월20일(목)	코모도호텔	예·결산 심의
	제45차 정기총회	3월28일(금)	코모도호텔	예·결산안 승인, 제31대 동창회장 선출
	야구추진회 임원단 회의	4월 중순	구포집	주요 회무 보고·현안 논의
	모교 개교기념일	4월30일(수)	학교 체육관	.
	홍커밍데이축제	4월 하순부터	모교 등	제42·32·22·12회
하 반 기	고문·회장단 회의(2차)	4월 말	대어초밥	집행부 상견례
	기별바둑대회	6월 말	중앙바둑센터	제1~48회 출전
	기별야구 대표자 회의	9월 중순	구포집	대회 계획안 승인
	고문·회장단 회의(3차)	9월 말	대어초밥	주요 회무 보고·현안 논의
	기별야구대회	10월 초~11월 초	모교 운동장	연합팀·단일팀 구성
	기별골프대회	10월 중순	부산 C.C	제1~51회 출전
	본부 이사회(2차)	11월 중순	코모도호텔	용마의 밤 계획안 승인 등
	용마등산대회	11월 중순	근교산	동문·가족 참여
	용마의 밤	12월12일(금)	롯데호텔	국내외 동문 참석
	용마장학회 이사회	12월 중순	대어초밥	'08 중간결산 보고

### 강만수(18회) 기획재정부 장관 임명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금융, 재정, 조세' 등 경제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대통령직인수위 경제1분과위 간사로 임명되면서 정가, 특히 공직사회의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던 강만수 동문(18회·전 재정경제원 차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경제개발 시대부터 30년 동안 경제 현장을 누비며 정책을 만들었던 정통 관료인 강 동문은 대선 당시 일류국가비전위원회 부위원장 겸 정책조정실장을 맡아 400여회의 회의를 주관하며 공약을 총괄정리하고 국가예산 절감 및 기업하기 좋은 나라 등과 같은 거대 담론뿐 아니라 금융 소외자 신용회복 같은 세부적인 안도 직접 평론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8회 행정고시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강 동문은 관세청 청장, 재정경제원 차관 등 다수의 굵직한 관료직들을 역임했다.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주식회사 부산스타자동차**

과장 **오 용 승** 46회  
**전화 010 6500 6404**



### 용마여! 다시 뛰고 날자

보라! 저 동녘에 솟아오르는 찬란한 새해  
어제의 모든 낡은 것들을 어둠과 함께 날려버리고  
가슴 벅찬 환희와 함께 새날을 불러오고 있다.  
용마여! 영도 어디쯤 습습한 동굴에서 뛰쳐나와  
새롭게 침착 발걸음으로 지축을 울리고  
날개 활짝 펴서 환소리 러공에 포효하며  
저 광활한 창공을 향해 힘차게 뛰어올라라.  
현해를 구비했던 고래야 대양 고래야!  
네 눈에도 새해의 뜨거운 햇살이 비치고 있구나.  
굳센 꼬리로 힘껏 바다를 쳐올리고  
저 넓은 대양을 향해 용솟음쳐라.

영도를 날고뛰던 용마와  
현해를 구비치던 고래가  
아직도 죽지않았노라, 펄펄 살아있노라고  
뜨겁게 떠오르는 저 새래와 함께  
2008년 이 한해도 저 우주들 향해, 오대양을 향해  
손과 손 마주 잡고 함께 용약을 라자.  
우리는 모두 용마와 고래 같은 형제들이다.  
지친 형제 이끌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천지를 진동하는 포효와 함께  
새해 새날에 힘차게 힘차게 뛰고 날자구나.

2008 원단 장승재 (12회)



장승재 약력  
60년 자유문학선인작품상 당선으로 동단  
현역문인협회회원  
문협경북지회장 역임  
울산시인협회장 역임  
부산가톨릭문화회장 역임

## 새정부의 희망기 꽃으며 용마 8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서 활약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해 12월 25일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형오 동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전 재정경제원 차관인 강만수 동문이 이 당선지의 '금융, 재정, 조세' 등 경제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인수위 경제1분과위 간사로 임명되어 새정부의 중책 일꾼으로서 그 이름을 드높이는 등 8명의 용마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거 발탁되어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내

외 용마가족에게 자긍심을 드높여왔다. '경제 살리기와 국민통합, 화합속 변화, 실용주의 등 국민적·시대적 요구의 충족'이라는 모토로 정부조직 개편과 향후 정부과제 수립 등을 위해 동분서주한 자랑스러운 용마의 얼굴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  
▷부위원장 : 김형오(20회·본부 명예부회장, 한나라당 국회의원)  
▷경제1분과 : 강만수(18회·전 재정

경제원 차관)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사회교육문화분과 : 엄상현(29회·경남 부교육감), 진성호(35회·선대위 인터넷 팀장, 전 조선일보기자)  
▷경제1분과 : 장수만(23회·전 부산진해 자유경제구역청장)  
▷기획조정분과 : 이재웅(26회·본부 명예 부회장, 한나라당 국회의원)  
(인수위원회 실무위원)  
▷대변인실 : 양휘부(16회·전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구본홍(20회·CTS 기독교TV 부사장, 전 MBC 보도본부장)

## 화합과 우정의 향연 울산지역동창회 '용마의 밤' 성료

울산지역동창회의 2007년도 정기총회를 겸한 용마의 밤 행사가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7시 울산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재울부산여고 동창회 장말남 회장과 재울경남여고 동창회 배금자 회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울산 지역의 최고원로인 정원준 고문(3회), 정갑윤(23회) 국회의원과 박명우(25회) 울산광역시장을 위시한 90여 명의 동문들과 가족 등 약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이날 진행된 공식행사에서는 울산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울산지역동창회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서정욱(15회), 권기택(28회), 김인열(29회), 최진곤(30회) 동문이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내년도 회장에 유임된 박흥조 동문(22회)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는 동창회가 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동문들이 만나는 기회를 더 자주 가지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뜻

을 밝혔다. 또한 내년 울산지역동창회의 신임 부회장 김무웅 동문(16회), 감사 여은호 동문(23회)의 소개와 함께 「선임패」를 수여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동창회가 되도록 각오를 다지는 자리를 가졌다.

■ 행운대상에 정성훈(38회) 동문  
이효성 동문(35회)의 사회로 진행된 2부 행사는 장기지량을 통해 평소 연마한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는데, 대상은 남진현 동문(24회)이 차지하였고 금상 황기철 동문(25회), 은상이복근(35회) 동문 부인, 동상 황행수(28회) 동문 부인이 각각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한편 행사 사이사이에 진행된 행운상 추첨에서는 12명의 동문이 당첨되었는데 특히 대상(김치냉장고 190L)에 정성훈(38회) 동문 가족이 당첨되어 박수감재를 받았다.



마산·장원지역동창회에서는 지난해 12월 13일 김우홍 회장(22회·(주)경남프뢰벨 대표이사)주재로 창원시 중앙동 소재 인터내셔널관광호텔 대연회장에서 150여명의 지역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정기총회 및 용마의 밤 행사를 성대히 가졌다.

## 마·창 정기총회 및 용마의 밤 백종무 (19회·거제 성포중학교장) 용마대상 수상

김우홍 회장(22회)은 인사말을 통해 "더 재미있고, 더 건강하고, 더 젊어지고 알찬 동창회가 되자"고 강조하였으며, 역대 회장인 안종무 동문(6회·노인사랑무료급식후원회 회장의 격려사에 이어 이경재 동문(13회·(주)동진분석기술연구소 원장)의 축배 제의가 있었으며 여환부(21회·대주건설(주) 회장) 전 회장에게 현 회장인 김

우홍 회장이 감사패와 꽃다발 증정하면서 이날 행사의 클라이막스를 장식하였다.  
또한 김영삼 본부 고문의 축하메세지가 전달, 대독 되었으며 본부 동창회의 격려금과 아울러 재경, 울산 지역 동창회에서 화환이 답지되어 이날의 분위기를 한껏 더 고조시켜주었다.  
이날 정기총회 및 용마의 밤 행사 시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정기총회  
△용마대상=백종무(19회·거제 성포중학교장) △공로패=한원우(26회·세원건설(주) 대표이사, 잔디회 회장) 백수현(33회·STX엠파코 팀장) △감사패=이천식(27회·한솔내과의원 원장, 경인회 회장) 김백수(30회·(주)CA메탈 대표이사)  
▶용마의 밤  
△본부동창회장 대상=심영섭(19회·전 한국중공업(주) 부장) △울산동창회장 대상=윤정욱(32회·코아안전공사 대표) △장기지량=1등상 39회 동기회, 2등상 안종무(6회·노인사랑무료급식후원회 회장), 3등상 김대오(52회·GM 대우자동차 근무)



푸르밀은 롯데우유의  
새로운이름입니다. 회장 신준호 (14회)



### 동문들 끼와 열정에 웃음꽃 만발 재뉴욕 동창회 송년잔치 들썩들썩



재뉴욕 동창회(회장:김치갑·26회)는 지난 12월 8일 팔리새디움 대원에서 예년 보다 많은 신·후배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흥겨운 송년잔치 한마당을 가졌다. 13, 14회는 높은 참가율로 동기간의 단합

과 우정을 과시하며 송년회 자리를 빛내 주었으며 보스턴과 필라델피아 등 먼 길을 마다않고 달려와 동창회에 대한 끈끈한 정을 보여준 동문들도 있어 그 자리를 더욱 뜻깊게 했다. 보스턴에서 온 최수길 동문의 춤과 만담, 펀치백 라디오 재담가 박은경의 사회와 노래 외에 동문 부인들의 수준급의 열창 등 저마다 끼와 열정의 주머니를 풀었고 푸짐한 음식과 경품 추천, 끝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간의 이야기로 송년잔치는 한바탕 흥겨움의 도가니였다. 한편 올해부터 재뉴욕 동창회는 더 많은 동창들의 참여를 위하여 송년회 대신 신년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 경야회 정기총회

- 신임회장에 최영관 동문(25회) 선출

경야회는 지난 1월 17일 중앙동 우스돈스에서 2008년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최영관 동문(25회)을 선출하고 집행부를 새로 구성했다.

조흥기 회장(22회)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이길상 고문(6회) 등 45명이 참석, 결산·예산과 올해 사업계획안 등을 승인한 후 임원을 개설했다. 올해 계획안에 따르면 10월 초~11월 초에 기별대항 야구대회를 주관하고 11월 중 OB-YB잔을 치른다.

경야회 신임 조직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고문=이길상(6회) 김홍국(18회) 이용규(22회) 이민성(22회) 송승훈(22회) 조흥기(22회)
- △회장=최영관(25회)
- △부회장=이성득(27회) 김용희(28회) 김동규(28회) 이충원(29회) 이환용(32회) 박상국(33회) 정문종(35회) 김용철(40회) 이재용(43회)
- △감사=장성환(22회)
- △총무= 이우상(31회·재무) 백홍문(33회·대내외 홍보 및 섭외) 신영석(40회·전산, 조직관리)

### 신우회 제6회 정기총회

- 신임회장에 안재상(20회) 동문 선출

2002년 11월 2일, 초대 이요셉 회장(15회)을 중심으로 세워져 '한 동문 돌아보고 한 동문 구원하자'는 비전으로 묵묵히 섬김의 삶을 펼쳐오고 있는 용마기독신우회가 지난 1월 15일 아리랑관광호텔에서 제 6회 정기총회를 열어 안재상 동문(20회)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아울러 임원진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수석부회장에 박지민 동문(21회)을, 국장에 최현린 동문(25회)을 선출하여 새로운 힘을 보강하였다.

그동안 동문 복음화를 위해 안으로 마음을 채찍질하고 바깥으로 월요일마다 기



독동문회 사무실에 모여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구 임원진들로부터 바톤을 이어 받은 새 임원진들은 초심으로 돌아가 처음의 그 열정과 눈물어린 마음으로 동문들을 돌아보고 예수의 길과 그 사랑을 회복하여 힘차게 약진 할 것을 다짐했다.

### "후라경고"로 하나 되다 용마회 '07송년의 밤

용마회는 크리스마스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7시 국제호텔 천마홀에서 10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의 밤' 행사를 거행.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정리하고 다가올 새해의 안녕을 기원하며 나눔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임채균 동문(32회)의 사회로 진행된 제1부 행사는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교가제창, 정영석 회장(24회)의 인사말이 있었으며 정 회장의 건배제의

로 참여 동문들 모두 술잔을 높이 들며 송년의 밤을 축하했다.

식사 후 이어진 2부 행사는 용마단합을 위한 노래자랑 이벤트로 그 화려한 서막을 올려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과 솜씨를 마음껏 발산하였다. 폭소와 정겨운 이야기로 뜨거웠던 2부 순서가 끝나고 매 행사 때마다의 별미 "후라경고"를 후배기수들이 선창하여 외치며 선후배간의 마음을 하나로 묶었다.

### 9월 21 문경 조령산으로 경부합동 산행기로

- 용마산악회 '08 정기총회, 신임회장 정영천(21회) 선임

육신의 가멸찬 한계를 느끼면서도 송곳날 같은 정신으로 자신을 채찍질하며 입산(入山)과 하산(下山)을 되풀이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넘어서는 일이지 험난한 바위 벼랑을 오르는 일보다 더 지난함을 아울러 실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산과 산행은 단순히 육체의 단련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도 되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보람과 행복을 가져다주었겠지요.

-산행대장 신남석(21회)-

용마산악회 '08 정기총회가 지난 1월 23일 오후 6시 30분 부산진구 범내골 제 일생명빌딩 23층 제일부페에서 열려 임원 개선을 통해 정영천(21·정영천법률사무소 대표) 수석부회장을 신임회장으로 선임하고 집행부를 새로 출범시켰다. 하영수 회장(17회)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각 동기회 산우회장을 비롯해 29명이 참석, 결산보고를 통과시키고 임원을 개선



하는 등 주요의제를 의결했다. 한편 박수갑 동문(23회)이 수석부회장에 선출되었고 신임감사에는 김성재 동문(22회)이 임명되었다.

산행대장에는 신남석 동문(21회)이 부대장에는 오기묵 동문(23회) 국장에는 김법영 동문(33회)이 부국장에는 김종만 동문(33회)이 각각 임명되었다. 올해 산행은 3월 9일 거제 계룡산을 필두로 하여 함양 거망산 등 4개산을 오를 계획인데 오는 9월 21일 문경 조령산 산행을 경부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미국 중서부 지역(시카고) 동창회 송년회

미국 중서부 지역(시카고) 동창회 송년회가 지난해 12월 1일 오후 6시 총무 김우갑 동문(26회)의 자택에서 개최되었다. 새로 회장을 맡아 수고하고 있는 박진철 동문(19회) 외에 김진환(8회), 허남석(12회), 김무정(16회), 홍정건(17회), 김중환(20회) 김정수 동문(22회)과 그 가족들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송년회는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지지후보지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여 어느 때보다 뜨거운 시간이었다.

송년회를 위해 푸짐한 만찬을 준비한 김우갑 동문 내외의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을 나눠먹으며 유쾌한 저녁 한 때를 보낸 동문들은 지난해 10월 26일 문내연동문(16회)의 타계로 식구가 줄어든 '시카고 동창회'의 옛 명성을 되찾을 것을 다짐하며 아쉬운 작별을 했다.

**전통건강죽 / 영양맛죽의 名家-본죽**

본죽은 미리 만들어 놓고 파는 죽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 세심하게 재료를 준비하고  
고객의 주문과 동시에 한그릇 한그릇 어머니의 정성으로 맛을 냅니다.  
본죽은 고객의 건강과 맛, 정성어린 서비스를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제 한끼의 식사에도 건강과 영양을 생각하십시오.

Korean Traditional Porridge Restaurant  
韓國の伝統おかゆ専門店

# 본죽®

전통 죽 전문점

**대표 김 용 희**  
(28회·전 롯데디자인츠야구단 감독)  
011-810-1705

Take-Out  
**고급선물포장**

미리 전화 주시면 바로 포장해 가실 수 있습니다.  
**(051)322-6288(부산 모라점)**

### 기 별 소 식

#### 다시 산... 각 동기회 시산제, 본격 산행 돌입

산행의 시작점이 어디이든 종착지는 오직 나이다. 그 산에서 길을 잃어도 무방하다. 어디로 가든 그 발길 닿는 곳에서부터 새 길이 만들어질 것이므로, 나를 넘어 서며 다시 나에게 이르는 길, 내 안의 생명성으로 향하는 그 길목에서 산벗들의 마음을 한데 모아 축문을 읊으며 제21회, 30회, 37회를 필두로 각 동기회 산악회가 시산제를 올리고 본격적인 산행의 물꼬를 틀었다.

#### ■제21회 동기회 금정산 하늘능선에서 우정과 단합을 기원

제21회 동기회는 1월 27일 금정산 하늘능선에서 신년 첫 산행을 가졌다. '가산리내어래임상'이 있는 골짜기와 금정산 고당봉 아래로 직능 하며 고당봉 서북능선 사이에 뻗어 내린 산줄기, 일명 '하늘능선'을 올라 다다른 너럭바위에서 시산제를 올리며 금년 한해의 무사 산행과 더불어 동기간의 두터운 우정과 단합

을 기원했다.

#### ■30산우회 예봉산에서

30산우회(사진)는 1월 20일 예봉산에서 176차 정기산행과 더불어 시산제를 가졌다. 최재봉 대장을 비롯한 총 28명의 동문이 참석하여 강추위를 뚫어내는 열정을 과시했다. 산악인 선사와 초한에 이어 축문 낭송, 종헌, 헌자 순으로 시산제가 진행되었는데 이날 시산제의 화제는 삶은 돼지머리를 대신한 황금돼지저녁뽕이었다는 후문.

#### ■37산악회 가덕도 연대봉에서 무사산행 기원

37산악회는 1월 13일 가덕도 연대봉에서 첫 산행의 타이프를 끊었다. 가덕도의

푸른 바다와 짙푸른 바람을 만끽하며 입산 한 뒤 곧바로 시산제를 올리며 산벗들의 무사산행과 산벗 가족의 건강과 복을 염원했다. 바다와 산을 함께 즐기고 오듯하게 오찬을 즐기니 그 즐거움이 배가 되었다고.



#### 재경경팔회 정기총회 겸 신년하례회 신임회장 강돈수 동문

재경경팔회는 지난 1월 8일 '08년도 정기총회 겸 신년하례회를 개최, 53명의 동문부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며 성대히 거행되었다.

임원선출에서는 그동안 잔여기간 회장직을 맡아온 강돈수 동문이 만장일치로 신임회장에 선출되었고 감사에는 윤태영, 조석현 동문이 각각 선출되어 동기회 심부름을 맡게 되었다.

공석준인 부회장과 사무국장은 새해에

산 식의를 앞둔 임시총회(3월 10일)에서 선임하기로 했다.

한편 경팔산우회(회장:김영철)는 지난 1월 4일 도봉산, 11일 수락산, 18일 관악산, 25일 북한산에 각각 올라 봄맞이 준비모듬을 하였고 잔디회(회장:배주원)는 3월쯤에 제162회 신년월례회를 가질 예정이며 팔신회(회장:이우환)는 3월 1일 한일기원에서 정기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 세월도 잊고 시름도 잊은 제18회 '뜨거운 송년의 밤'



우리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세월은 1초 1초가 아까운 시간들이며, 우리 옆의 친구는 하나하나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아까운 시간에 소중한 사람들끼리 자주 만나 변함없는 우정을 나누도록 합시다. 끝으로 우리들 서로가 영원한 동반자인 아내와 남편을 위해 있는 힘을 다하면 합니다.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의 아내요, 남편입니다. 더없이 귀중한 동반자를 보석보다 더 아

끼고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송년의 밤에 부처, 남두진(18회 회장)—  
이순을 넘어선 벗들을 향해 남두진 회장은 이렇게 송년회 인사를 맺었다. 정해년도 이제 기울대부 기운 지난 12월 13일 동래구 은천동 금강예식장에 모인 18회 동문 부부들은 반가운 손님을 부여잡고 삼삼오오 모여 지난 1년의 시간과 남은 생의 시간들을 헤아렸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그간 살아온 얘기들을 필치라 눈과 마음이 바꿨다. 이제 만나고 오늘 또 보는 친구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만나든 그정은 두터워만 갔다. 여전히 열아홉의 그 뜨거운 마음이었다. 슬자리가 이어지고, 아직 정춘인 마음을 앞세워 노래하고 춤추느라 세월도 잊고 시름도 잊었다.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다. 18회는 그렇게 우정과 부부의 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정해년을 보내고 무자년 새해를 맞을 준비를 했다.

#### 추위야 물렸거라-경열회 2007년 마지막 수업 신임회장 이병철 동문

경열회는 44명의 동문들과 4명의 동문부인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2월 10일 양재동 소재 스포타임 오렌지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 이병철 동문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조정만 회장의 주재로 진행된 정기총회는 결산보고에 이어 퇴임회장과 신임회장의 인사가 있었으며 각 모임의 활발한 스폰서, 높은 출석률, 장거리 참석 등을 자랑하는 동문들을 위시하여 전 참석 동문들에게는 40장의 상훈권이 각각

주어졌다.  
강북화요회(회장:김동근)는 12월 4일 부민역에서, 분당토요회(회장:조수영)는 12월 14일 서현역 순두부집에서 마지막 수업을 하며 정답을 꽃피웠고, 능산모임 사니즈아(회장:이계창)는 12월 8일 대보산에 이어 12월 16일 수리산을 증주하였다. 한편 테니스모임 정우회(회장:정상수)는 12월 18일 병촌중앙공원테니스장에서 금년 마지막 월례대회를 가졌다.

#### 제23회 송년의 밤

제23회 동기회는 지난해 12월 28일(금) 오후 6시 다이아몬드호텔 1층(연산R) 아라비안나이트에서 서승환 회장을 비롯한 6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다. 고가제창으로 시작된 1부 행사에서는 동기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온 서승환 회장의 연임 인사가 있었으며 전영조 고문의 건배제의로 모두 한마음이 되어 "동기 결속을



위하여"를 함창했다. 이어 진행된 2부 행사는 입담 좋은 전문MC를 초청하여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하였는데 노래자랑, 경품추첨 등과 같은 이벤트 행사를 통해 동기단합을 과시하였다.

#### 재경 14회 우정의 '물결' 속으로 新·舊회장 이·취임식 함께-신임회장에 오종철 동문

지난해 12월 18일 저녁 6시 선릉역 인근 상제리제피앙세홀에서 재경 14회 총회 및 송년회가 96명의 동문부부들이 모인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 지난 2년간 수고끝까지 지 않았던 이현영 회장은 "그동안 여러분의 협조로 동기간의 우정이 더욱 돈독해진 것은 개인적으로 또 우리들 모두에게 축복이었다"면서 차기회장 오종철 동문에게 바램을 남기며 축하를 표했다.

오 회장은 "세상에서 이렇게 잘되는 14회 동기회만한 모임이 없다"며 "더욱 알찬 동기회를 만드는데 헌신의 힘을 기울



이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오 회장은 박진 간사장을 비롯 김용후, 전병순, 이광우 동문을 감사로 유임시키고 남기우 감사는 총회의 인준을 받아 연임키로했다.

#### 제28회 신임회장 양종명

제28회 동기회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7시 조방앞 하보나웨딩홀에서 정기총회 겸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김용진 동기회장을 비롯하여 36명의 동문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양종명 동문(사진)이 차기회장으로 선출되어 집행부 선임의 책임을 맡았다. 한편 밴드의 흥겨운 음악과 만담의 반가움이 함께 어우러졌던 송년의 밤 행사에서는 1년 동안 동기회를



위해 헌신한 김명영, 김치운, 이원철, 서정환 동문이 공로상을 수상했고 주천을 통해 이관선(1등), 문형재(2등), 김정유(3등) 이승하(4등) 동문이 행운상을,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념품이 주어졌다.

#### 제15회 송년의 밤

제15회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7시 부산 롯데호텔 사파이어홀에서 부부동반으로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월례회와 송년의 밤 행사를 거행했다.

제1부 행사로 치러진 월례회는 최원수 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국민의례에 이어 울트라마라톤 한국기록 보유자인 이영정 동문이 선창을 한 고가제창과 김경일 회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제2부 행사인 송년의 밤은 조일량 국장이 진행을 맡았는데 신홍규 동기회 자문



위원의 송년사를 위시하여 케익커팅식이 있었고, 손부홍 동기회 자원위원의 제의로 일동 건배를 한 후 신나는 노래자랑으로 송년 행사의 막을 올렸다.  
이날 참가자 전원은 동기회에서 마련한 2008캘린더를 기념품으로 받았다.

#### 2007 아듀, 술잔을 높이 들어라 제29회 송년의 밤, 우정 '충전'의 시간

2007년을 배웅하는 아쉬운 속에서 제29회 동기회는 지난해 12월 20일 민락수변공원 앞 바다풍경에서 그간의 회포를 풀고 아쉬움과 격려를 함께 나누는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김용채 동기회 회장을 비롯하여 총 30명의 동문이 참석한 이날 행사를 위해 김회장과 김호성 동문이 양주를 협찬하여 술자리를 더욱 풍성하게 했으며 서로 주

거니 받거니 나누는 정담과 술잔 속에서 우정을 재충전하며 유쾌한 웃음꽃을 피웠다. 한편 짙어온 가을이 있다며 조심스럽게 서두를 뻔 김영홍 동문의 차기회장직 수락인사에 모두 격려의 박수로서 화답했다.

29회는 2008년도 준계 경부한농산행으로 3월 8일부터 1박 2일로 경북 김천 소재의 황아산을 등반할 예정이다.

권근술 (14회) DMZ평화상 수상



사단법인 남북어린이개동부의 강동대표 권근술 동문(14회·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좌교수)이 지난해 11월 29일...

의 일원으로 참여한 이래 이 신문의 대표이사 사장과 고문 등을 역임했다.

최동완 (21회) 문학21사 주관 시 부문 문학상 수상



최동완 동문(21회·태원전기산업(주)생산담당 사장)이 지난해 12월 14일 서초동 팔레스호텔에서 문학21사 주관 시 부문 문학상을 수상했다.

안중 (28회) 2007 부산 디자이너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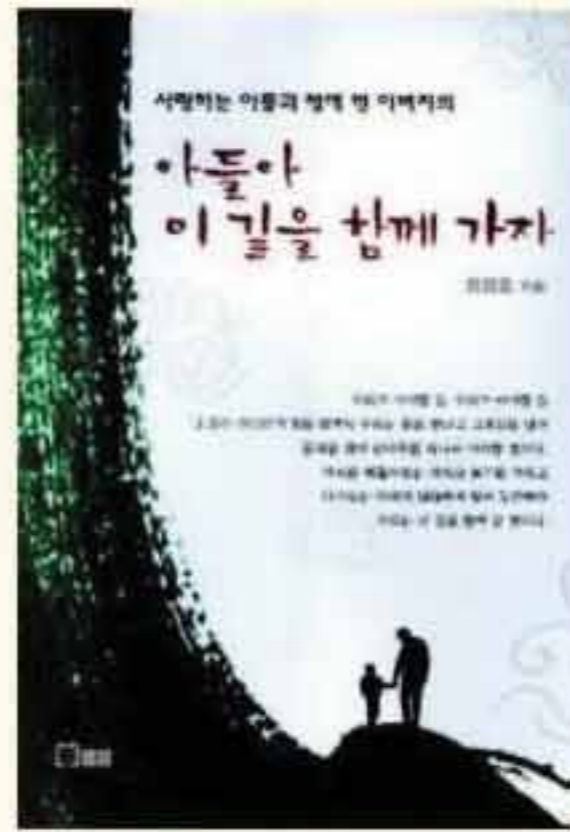


월간 「인쇄마당」의 발행인 안중 동문(28회)이 '2007 부산 디자이너상'을 수상하였다. 지난 11월 23일 부산 수영만 센텀시티 소재의 부산디자인센터에서...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한 아버지의 '아들아 이 길을 함께 가자'



학생운동이 가장 격렬했던 지난 87-90년, 운동권 아들을 두고 가슴 졸이며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했던 한 가족의 진솔한 이야기 「아들아 이 길을 함께 가자」가 출간,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책은 암울했던 시기를 살면서 자신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믿는 가치와 목표를 위해 험난한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한 젊은이의 민주화 이야기인 동시에, 그런 아들을 위해 기꺼이 그 길을 함께 걸었던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이다.

이 시대 모든 젊은이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대법원 정기인사 김경중 동문 대전지방법원장으로 전보



최근 단행된 대법원 정기인사에서 5명의 판사 동문이 전보 발령을 받았다. 특히 김경중 동문(27회)은 울산지방법원장에서 대전지방법원장으로 이동하여 13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 집무에 들어갔다.

원장 등을 역임한 김 동문은 2006년 '강제집행과 체납처분의 절차조정법의 입법론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학구파 법관이다.

함께 전보된 동문은 다음과 같다.

- 김윤수(24회) 성남지원 광주지법원 판사
성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18회 사법시험 합격
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판사

- 김정학(25회)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전 수원지방법원 부장 판사

- 박준민(39회)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대 공법학과 졸업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김형훈(40회) 서울고등법원 판사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재경 제7회 배중현 회장 유임



재경 제7회 동기회는 온 산하에 가을이 성큼 내려앉은 지난해 11월 5일 대둔산 등반 야유회를 통해 우정을 다진데 이어 지난 12월 17일에는 2후선 성수역부근 유니온부패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배중현 회장을 비롯 변수근 국장, 배병우·이종욱·최인호 부회장, 조덕찬 감사 등 임원단 전원을 유임시켰다.

문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 임원 개신에서 조길수 동문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하고 부회장은 김대원, 이승영 동문을 감사에는 이선형, 장명재 동문을 임명하고 국장에 서정철 동문을 유임시켰다.

13회 신임회장 강귀동

13회 동기회는 지난 2월 1일 동기회 사무실에서 오한수 회장의 주재로 '08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결산보고·임원 개선 등 주요 의제를 의결하고 오는 4월 하순부터 있을 졸업 50주년 기념 '홉커밍데이'를 대비하기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새 임원진으로는 회장에 강귀동 동문, 수석부회장에 이용용 동문, 국장에 장영길 동문이 선출되어 동기회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제10회 신임회장 조길수

제10회 동기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6시 중앙동 소재 화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30여 명의 동

제21회 신임회장 최현두



제21회 동기회는 지난 12월 21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서면 터존뷔페에서 부부동반으로 총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겸 송년회를 가졌다.

이재호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2007년도 결산 및 감사보고 통과에 이어 새 임원진을 선출, 회장에 최현두 동문이, 국장에 이성집 동문이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제33회 신임회장 이광호

올해로 졸업 29주년을 맞는 제33회 동기회는 지난 2월 15일 부전동 소재 대림부패에서 23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 '07년도 결산보고에 이어 새 임원진을 선출하였다.

이윤조 회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이사회에서 이광호 동문(이광호성형외과 원장)이 동기회장에 만장일치로 선출되었고 사무국장에는 주기훈(알리안츠생명보험 지점장), 장정석 동문(팔도하우징 이사)이 선출되어 동기 발전과 지역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것을 다짐하였다. 한 편 집행부 구성은 3월 정기총회 시 발표기로 의결했다.

제41회 신임회장 홍석우

제41회 동기회는 지난 1월 29일 조량동 해운대숯불갈비

에서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동기회 신년모임을 가졌다. 추교용 회장의 건배제와 인사말을 시작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신임회장 선출부분에서 가장 열띤 논의가 오갔는데 차기 회장으로 홍석우 동문(SSC컨설턴트대표·동의대 겸임교수)이 추대되어 동기들의 열화와 같은 호응을 받으며 신임회장에 선출되었다.

동기들의 이러한 진폭적인 지지에 감사의 뜻을 전한 홍동문은 "앞으로 동기회의 단합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용 마 춘 추

<이 글은 27회 사이버동창회에서 발제한 글로 조동구 동문이 2고때 쓴 '학창시절 추억의 글'입니다.>

# 돌아오는 찾간에서

조동구 (27회 · 부경대 국문과교수)

14일 일요일 돌아오는 날 우리는 마지막으로 식전에 다시 한 번 족석루를 찾았다. 새벽 진주 시내 20m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로 가득 차다. 바람이 없는 식전의 영하기온에 입김과 손시림은 한겨울을 연상했으나 모두는 불평을 하지 못했다. 손을 주머니에 꽂고 연방 콧등 빨간 입김을 뿜으며 한적한 족석루로 들어서 뒤 권 名妓 논개의 사당 앞에 세워져 있는 비석 앞에서 숙연히 400여 년 전의 의분을 느끼며 안개 피어오르는 남강을 감회어린 눈으로 바라봤다.

### - 나 언제 다시 또 찾아오리오

돌아오는 길에 비로소 안개는 걷히고 뿌연 등녘으로 진홍색 색감이 솟구쳤다. 太陽 - 질 좋은 외제 물감을 들에 풀어놓은 듯 온 동쪽하늘이 색을 입었다. 움직이는 색깔. 마지막 날 진주의 태양.

11시 완행열차를 타고 진주땅을 밝은지 만 나흘 우린 맑은 것을 초치하고 맑은 것을 배웠으며 또 맑은 성과를 올렸다. 허나 우리가 진주에 와서 가장 뚜렷이 보고 느낀 것은, 다른 어느 것보다 절실한 것은 큰 제복으로 전술(前途)한 바 있는 그 순후하고 단체적이며 예술적인 진주의 시민정일 것이다.

처음 진주에 내려 눈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찬란하던 예술제 기념관 등이 서울이나 부산의 야경 이상의 조화와 밝기를 지녔음은 물론이고 일점포 일관 등의 그 일관성은 타도인의 가슴을 부끄럽게 하고 또 부러움과 우려됨으로 발걸음을 무겁게 했다는 것도 사실이다.

행여 한 끼라도 굶을세라 돌봐주던 여관주인 마님의 어머니 같은 친절과 배려. 그리고 아침 안개 속의 환도 진주는 어찌낸 초행인에겐 신화속의 고장일 것만 같고 장원상에 들른 우리 다섯을 반겨 주시던 주인아저씨의 파안은 그대로 불의를 모르고 살아온 촌로의 그것이었다.

차시간 30분을 남겨 놓고 순갈을 들기 시작하여 습도 쉬지 않고 600초 만에 상을 불리고 벼락같이 가방을 챙기며 K는 방을 쏘고 그 틈새에도 우리는 낙서를 했다. 동으로 트인 창문 왼쪽 10cm지점. 기억도 생생하다. 그 8자 중서.

### - 경남교 왔다가

백시 잡다가 소요한 세월 5분여, 진주역 매표구에서 나는 표를 끊고, N과 C는 개찰구로 바빠 뛰고 K, J는 짐을 맡아 들고 매표원은 상팔을 해가며 할인료 계산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가까스로 발차하는 기차에 올라타 그것도 특급열차 칸에 서서 우린 숨을 할딱거리면서도 나흘을 살았던 진주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생각하며 숨가쁘게 송사를 외고 있었다.

었다. 물론 어느 것도 일장일단은 있어 그곳에도 오래 살다보면 또 싫증이 나겠지만 우리는 사실로 얼마나 결핍된 인지상정 속에 살고 있는가. 사랑한다는 미덕 속에 살아감이 이대로 죽는다면 천당 이상의 더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있다는 목사의 말을 들은 노신사의 안도(安堵) 탄복이나 행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다.

「센터」라고 하는 대중교양월간지를 보면 언젠가 지옥과 천국과의 구별을 자기 팔길이 보다 긴 순갈로 식사하는데 있어서의 차이로 갈해 놓은 적이 있다. 지옥에서는 순갈이 길어서 밥 한술 제대로 먹는 이가 없는 데 반해 천국에서는 서로 마주 앉은 사람의 입에 밥을 넣어주는 방법으로 서로 배불리 먹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그런 것이다. 사랑과 협조하는 도덕이 뿌리박고 있지 못한 사회는 언제까지나 기아(飢餓)와 궁핍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 언제 한번 이런 얘기가 실린 적이 있다. 열라대왕의 실수로 잘못 지옥에 끌려 온 몇 사람을 열라대왕은 특별히 다시 세상에 돌려보내 주기도 하고 소원을 붙였다. 모두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갈망하였다. 그런데 그중 단 한 사람이 정치 좋은 길은 산 속에서 시나 읊으며 홀로 살고 싶다고 했다. 그때 열라대왕이 받아서 일침.

### - 예끼 이 사람, 그런 곳이 있으면 내가 가겠네

건성으로 들으면 우스운 이야기이고 만다. 그러나 무언가 가슴을 찌르는 게 짙막한 얘기 속에 들어 있고, 더 깊이 생각하면 그런 낙원을 갖지 못하는 우리의 무기력이 아쉬워지기까지 하는 것이다. 노력하여 그런 낙원을 이룩하라는 뜻인지도 모른다. 그러한 노력,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노력이 아니다. 아침 청소차 소리가 듣기 싫어 식모를 든 가정주부나, 1마일도 채 안되는 등교길을 택시로 왕복하는 새나라의 어린이가 급증하고 소비성향의 성장곡선만 주시하는 사나이들이 존재하는 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런데 바로 그 노력의 가능성을 우리는 진주에서 보았다. 근면하고 활발하고 자발적인 시민성을 우리는 보았다. 풀 한 포기 나지도 않던 황무지를 밀림으로 바꾸는 데에는 막대한 자금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일체적 인격의 결함이 있어야 할을 우리는 알 것이다. 진주라는 부산으로 치면 동구 정도만한 소도시에서 우리는 진정한 가슴을 살찌우고 미지를 일깨웠으며 현실의 단편을 인진할 수 있었노라 자부한다. 죽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찾을 수 있을는지 모르나 언제나 기대할 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도시의 융합과 발전을.

### 조문환 (10회)

가난한 이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필리핀에서 아름다운 섬김의 삶' 한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새마을 운동의 깃발을

조문환 동문(10회 · 현 선교사)과 부인 김영애(목사)씨가 필리핀 땅에서 피워올리는 희망의 불씨들로 이 겨울이 훈훈하다.

2000년부터 필리핀 파나이 섬 일부일부에서 부인과 함께 8년째 선교생활을 하고 있는 조문환 동문은 복음의 전파라는 사명을 넘어서 혈벗음과 극심한 가난 속에 있는 이곳 현지인들에게 자립의 기반을 물론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삶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끊임없이 지펴 주고 있다.

조 동문은 그간 선교활동과 NGO사역을 겸하여 바장안시 카투빅 마을에 사랑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시초로 현지 정부로부터 기증받은 불보지를 개간하여 도로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전기공급, 마을회관 건축, 새마을 선진학교 설립, 새마을 시범농장을 조성 등으로 곳곳에 새마을 운동의 깃발을 꽂았다.

특히 그가 시도한 돼지 분양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어 돼지를 키우다 죽으면 그 자치단체에서 배상하도록 했는데 이 돼지들은 8개의 마을에 분양되어 주민 소득에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이곳 공무원과 학생들에게 컴퓨터 무상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미덕이 되고 있다.

### 심문섭 (17회)

성산 장기려상 수상



대한암협회 부산지회 장인 심문섭 동문(17회 · 부산대학교병원 외과교수)이 지난해

12월 14일 제2회 '성산 장기려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우리나라 간 연구의 선구자인 故장기려 선생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의학도들에게 참다운 인술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 지난해 제정된 상으로서 의학도에게는 매우 영예스러운 상이라 할 수 있다.

심 동문은 그동안 600여 차례나 간 절제수술을 집도하고, 간 내 담석증과 간 재생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지난 2004년 대한암협회 부산지회장에 취임해 활발한 암 예방활동도 펼쳐왔다. 하버드의과대학 간담도 외과 및 간이식 외과 Fellow, 일본 테이코대학교 의과대학 간담도외과 Fellow이기도 한 심 동문은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여 동 대학병원 외과 교수와 중앙수술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 박대동 (23회)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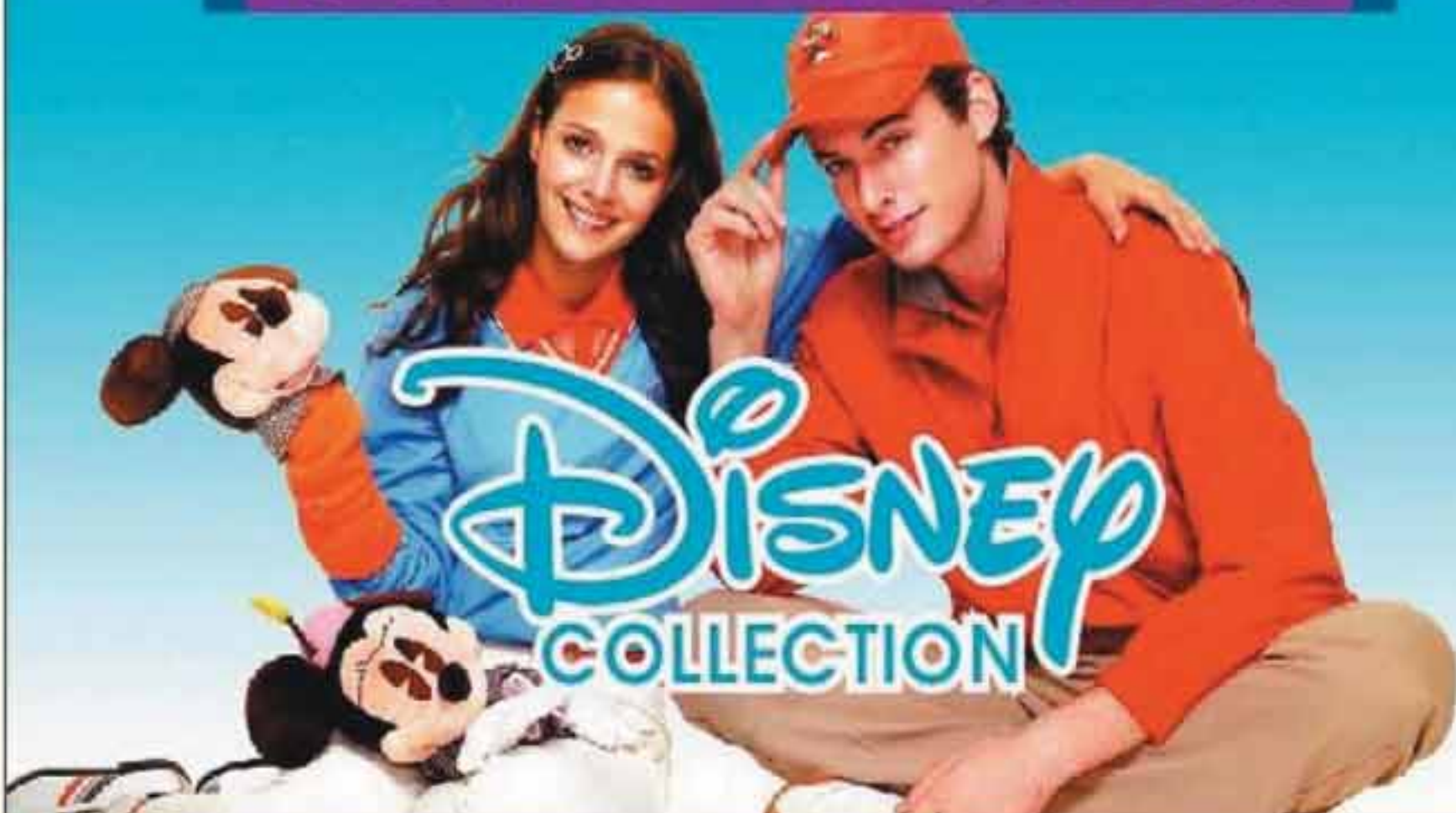
지난해 12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인사추천회의에서 예금보험공사 사장에 내정되었

던 박대동 동문(23회 · 전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1월 7일 예금보험공사 19층 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3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취임사에서 "예보의 건전성 제고를 통해, 보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리스크에 대한 상시감시 체제를 확고히 정착시키겠다"고 뜻을 밝힌 박 동문은 특히 대내외 금융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어 예금자와 투자자, 보험계약 관계자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 22회로 공직에 입문한 박 동문은 재무부 이재국 사무관, 재정경제부 외화자금과장,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파견 국장 등을 거쳐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 최고급 GOLF WEAR 상설할인매장



## 디즈니 GOLF WEAR 상설할인 서면점

서면롯데호텔 서문 아래쪽 로얄볼링장 1층 TEL. 051-815-3355~9 FAX. 804-1810

## 서면 GOLF 회원권 매매전문

골프 · 콘도 · WEAR · GOLF채 · 시상품 · 상패

빛과 바람까지 설계한 김해 롯데 SKY Hill C.C

회원 1명, 그린피 면제, 지정인 1명, 주중 그린피 면제, 분양금 2억원

보라 · 에덴밸리 · 정산 · 해운대 C.C 분양주관사

부산시 진구 부전동 514-1번지(서면롯데호텔 서문 아래쪽 로얄볼링장 1층)

TEL : 803-0654~5, 817-0606~8 FAX : 804-1810

17회 여성열 011-854-0707 25회 여성초 010-2552-3203

제 7 회

김광욱 = 2월 14일 모친 별세. 서대신동 위생병원
김성락 =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97-8번지 화춘당약국 원장 ☎(052)263-2888, 011-874-3610
이근영 = 1월 1일 부친 별세. 양정동 동의료원 장례식장

제 8 회

이중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꿈마을 신안APT 1908동 1802호

제 9 회

김동용 = 전 조흥은행 상무, 건강호전.
김용관 = 부산시 동구 초량3동 1194-10번지 대동빌딩 901호 (주)세이브코리아 ☎(051)462-1843
김영식 = 12월 22일 삼녀 지혜양 결혼. 목포 웨딩펠리스
김원섭 =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467-97번지 금호어울림APT 101동 1303호 ☎(02)588-2295
김태영 = 부산시 남구 용호1동 735-4번지 1동 3반 1층 ☎(051)628-1140
허남수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21-1번지 청담현대빌라트 502호 ☎(02)556-9516

제 10 회

박철민 = ☎(031)396-0996
서진홍 = ☎(031)783-3751
신광식 = ☎011-9914-4584
이효술 = 상암월드컵 1단지 106동 1106호
E-mail: intranl.com
정훈 =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청솔마을 주공APT 613동 602호 ☎(031)269-2419
한경봉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372-120번지 ☎(031)791-0362, 010-7399-0362

제 13 회

(13회 동기회 사무실 이전)
부산시 서구 부용동 1-69번지 원조18번원당 1층 ☎(051)462-5913

강귀동 = 부산시 사하구 괴정1동 733번지 14동 6반 신동양APT 2동 1109호
김상치 = 1월 26일 아들 결혼. 벡스코 초이스홀
남영기 = 1월 6일 딸 결혼. 동주대 아카데미하우스
노일용 = 12월 29일 아들 승남군 결혼. 노블레스웨딩컨벤션
배인기 = 12월 22일 모친 별세. 영락공원 영안실
장미추 = 12월 8일 딸 결혼. 협성웨딩홀
장위추 = 12월 9일 아들 결혼. 메리움웨딩홀
최상호 = 12월 26일 모친 별세. 복음

병원
안중일 = 2월 14일 모친 별세. 남천동 좋은강안병원

제 14 회

김영지 = 12월 15일 아들 용규군 결혼. 신라호텔 다이아스티홀
김용호 = FP디젤 한국 총 대리점 이강실업(Co) 설립. (모든 선박 엔진 부품 수입 판매 및 AS) 부산시 영도구 남항동3가 29-1번지 ☎(051)412-6704~5, FAX 051)412-6707
김창기 = 11월 25일 장녀 민양 결혼.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
문성필 = 11월 18일 장녀 지영양 결혼. 서울 파티웨딩홀
박순일 = 1월 9일 장남 경복군 결혼. 대청동 중앙성당
손의용 = 1월 7일 별세. 동래 봉생병원
유정호 =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1634 다대롯데캐슬몰문대 303동 1401호 ☎(051)292-4943, 011-801-0999
이동영 = 1월 31일 장모상. 부산 남천성당
천금성 = 해양문화가, 1월 25일 「어부 바다로 안가다」출판 기념 사인회. 부산일보 10층 대강당

제 15 회

오세창 = 1월 16일 모친 별세. 동아대병원 장례식장
이선공 = 부산시 해운대구 좌3동 한일APT 107동 601호

제 17 회

김원일 = 1월 31일 장인 별세. 부산주례 보훈병원 영안실
남일용 = 1월 5일 장남 결혼. 해운대 노보텔멤버서더
박신도 = 1월 22일 모친 별세. 부산영락공원 영안실

제 18 회

김정래 = 2월 17일 장녀 수현양 결혼. 화지문화회관 3층 고구려홀
김홍환 = 1월 26일 장남 결혼. 서울 광고문화회관 디어컨벤션센터
류태현 = 1월 5일 장녀 희정양 결혼. 남천성당
이재일 = 1월 5일 장녀 지원양 결혼. 금강웨딩홀
조동계 = 12월 18일 별세. 동래 백병원

제 20 회

정상구 = 1월 21일 별세. 울산 굿모닝병원 장례식장

제 21 회

김홍근 = 2월 2일 장남 병훈군 결혼. 서울 하얏트호텔
구분능 = 1월 9일 모친 별세. 서울대병원
공기화 = 12월 15일 장녀 결혼. 국민연금회관 3층

어디서 무엇을

마상준 = 12월 16일 차남 결혼. 국민연금회관 3층
박중용 = 1월 5일 장녀 결혼. 명동성당
박영석 = 1월 12일 장남 결혼. 해운대 조선비치호텔
오거돈 = 1월 12일 차녀 결혼.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이정규 = 12월 5일 모친 별세. 남천장례식장
허용도 = 1월 20일 모친 별세. 좋은강안병원 장례식장

제 22 회

김수열 = 1월 26일 딸 결혼. 서울 오금동성당
박행천 = 1월 26일 딸 결혼. 강남웨딩의전당
안계환 = 1월 1일 부친상. 삼성의료원 영안실
이병수 = 2월 2일 딸 결혼. 삼성동 공항터미널예식장
이영화 = 1월 19일 장인상. 일원동 삼성의료원
이재호 = 1월 19일 부친상. 부산영락공원 2호 장례식장

제 23 회

김장섭 = 사회복지법인 「실버엘」 개원
윤만수 = 1월 26일 장남 결혼. 온천성당
정상진 = 12월 23일 장남 결혼. 파라다이스호텔
장대익 =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건설교통전문위원으로 전보
조진호 = 부산 「나라병원」 원장. 부산시 중구 동광동 3가 1-2번지 ☎(051)246-0505
조현표 = 1월 27일 장남 결혼. 메리움웨딩
허갑진 = 울산시 북구 천곡동 삼성코아루APT 103동 1202호
허도 = 부산 강서구 총무국장으로 전보

제 24 회

구분준 = 1월 9일 모친 별세. 서울대병원
서정대 = 1월 17일 부친 별세. 침례병원 장례식장
정영석 = 1월 26일 장녀 연경양 결혼. 해운대 그랜드호텔
조태홍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09-17번지 대우멤버스 101동 401호 ☎(02)534-8804

제 25 회

김윤겸 = 1월 5일 부친 별세
박중찬 = 2월 3일 장녀 결혼. 서면롯데호텔
이민호 = 1월 19일 부친 별세
정동렬 = 1월 18일 별세

제 27 회

이기우 = 1월 8일 출판기념회. 창원전문대 체육관
정철길 = 12월 18일 SK C&C 부사장으로 승진
지대성 = 12월 28일 별세
한장원 = 동아대 미술학부 교수, 1월 10일~1월 13일 개인전. 청담동 청화랑
최경룡 = 1월 2일 한국전력공사 동울산지점장으로 영진

제 28 회

김영학 = 12월 26일 모친 별세. 서울한양대병원
김용희 = TIGER GOLF CLUB (실내골프 연습장) 개업, 연제구 거제1동 한양타워빌 3층 ☎(051)953-0707~8, 011-810-1705
박성오 = 1월 21일 모친 별세. 삼성의료원 장례식장
박영규 = 2월 23일 장녀 박진영양 결혼. 해운대 벅스코 컨벤션홀
서영대 = 1월 17일 부친 별세. 침례병원 영안실
한봉철 = ☎010-3710-0011
황행수 = 현대미포조선 부장에서 상무보로 영진

제 29 회

김홍기 = 12월 9일 장인 별세. 이대목동병원 영안실
백경돈 = 12월 10일 장인 별세. 침례병원 영안실
이남중 = 1월 21일 모친 별세. 감전동 삼신전문장례식장
장현경 = 12월 29일 장모 별세. 청주흥덕구 장례예식장
정란 = 고려제강 근무, 1월 1일 이사 승진
천재필 = 1월 22일 장모 별세. 부산진구 행복한병원 장례식장

제 30 회

김영운 = 12월 26일 모친 별세. 서울한양대병원 영안실
김영호 = 1월 2일 (주)태광SCT 대표이사로 취임 ☎(051)970-6700, 019-524-7315
김익수 = 1월 26일 장인 별세. 제주시 한마음병원 장례예식장
김호범 = 「부영장 횃집」 개업. 부산시 기장군 연화리 160번지 ☎(051)721-8845~6, 019-635-7702
이상필 = 12월 25일 「엔젤 인 아스」 해운대점(커피 전문점) 오픈. 아쿠아리움 맞은편 뉴비치호텔 1층/2층 ☎(051)744-7222, 011-1755-0330
정경석 = 국제청 봉창 서기관, 1월 2일 원주세무서장으로 부임. ☎019-216-0003
정용하 = KT 대연동지점장으로 부임. ☎010-2833-4807
허계관 = 1월 26일 장녀 결혼. 진주포시즌예식장
차상윤 = 2월 3일 장모 별세. 포항의료원 영안실

제 33 회

김홍근 = 1월 7일 장인 별세. 보훈병원
최환호 = 1월 14일 장인 별세. 동아대병원 장례식장

제 34 회

류세호 = 1월 16일 별세. 개금 백병원 영안실
황호용 = 충무동 예일재활병원, 2007년 12월 7일부로 구평예일병원으로 확장 이전개원 ☎(051)260-6600 (진료 및 입원상담:박만득 ☎016-550-4376)
박중환 = 1월 23일 모친 별세. 부산영락공원

제 36 회

김동현 = 울산시 남구 아음동 신정현대홈타운 209동 2104호

제 37 회

강주영 = 12월 22일 장인상. 신촌세브란스병원
이근영 = 1월 1일 부친 별세. 동의료원 장례식장

제 39 회

이근우 = 울산시 중구 남외동 대우푸르지오2차 201동 205호

제 43 회

백정은 = 울산시 남구 신정동 신성미소지움 207동 2406호

제 46 회

송창률 = 울산시 중구 다운동 다운APT 202동 1205호 경동도시가스 대리 ☎016-570-4915

부산 기초 과학계의 큰 별 주상우 전 경남고등학교 교장 별세



「한국식 불도감」 「산과 들의 계절식물」 등의 저서를 남기며 식물분류학자로써 부산 기초 과학계에 뛰어난 업적을 남기 주상우 전 경남고등학교 교장이 지난해 12월 26일 밤 11시 향년 83세의 나이로 숙환으로 별세했다. 경남고등학교 제9대 교장으로 취임하여 1981년 3월 9일부터 1985년 4월 7일까지 봉직하신 교인은 1925년 경남 진주 출생으로 1945년 진주사범대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중학교와 부산시교육위원회 학무국장을 거쳐 1985년~87년 제7대 부산시교육감을 역임한 바 있다.



서민석 (30회)

서민석 세무회계사무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10-5(수영세무서 입구)
Tel. (051)628-1296
Fax. (051)628-2905
E-mail: sms7766@hanmail.net

업무 세무상담 및 고문 | 기장 및 신고대리 | 법인 및 개인세무조정계산서 작성 |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신고 업무 | 조세 불복 청구대리



**회비 납부 현황**

(2008. 2. 20 현재)

**1. 회장단 및 본부이사  
(2007년도분)**

- 회 장: 안강태(11회) 500만원
- 자문위원: 김병기(11회) 100만원
- 부회 장: 강수현(12회) 송규정(16회)  
김길제(18회) 이용훈(19회) 김두영(20회)

이재희(21회) 박재상(22회) 박흥조(22회)  
유재진(22회) 김진철(25회) 김두전(26회)  
박상호(26회) 이원철(28회) 최강호(28회)  
김용채(29회) 윤성택(30회) 박명진(33회)  
김두섭(34회) 정성운(39회) 이상 200만원  
임태영(40회) 100만원

- 명예부회장: 김형오(20회) 100만원
- 감 사: 박철병(23회) 안상수(24회)  
김태우(27회) 이상 100만원

**2. 동기회 분담금 납부현황(2006, 2007년도분)**

(단위: 원)

가수	2006년			2007년		
	본부납입금	모교야구 후원금	계	본부납입금	모교야구 후원금	계
6	500,000	200,000	700,000	200,000		200,000
7	500,000		500,000	500,000		500,000
8	600,000	300,000	900,000			
9	600,000	300,000	900,000	600,000		600,000
10	800,000	300,000	900,000	600,000	300,000	900,000
11	900,000	500,000	1,400,000	900,000	500,000	1,400,000
12	900,000	500,000	1,400,000	900,000	500,000	1,400,000
13	900,000	500,000	1,400,000	900,000	500,000	1,400,000
14	900,000	500,000	1,400,000	900,000	500,000	1,400,000
15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6	1,200,000	800,000	2,000,000	1,200,000	800,000	2,000,000
17	1,200,000	800,000	2,000,000	1,200,000	800,000	2,000,000
18	1,200,000	800,000	2,000,000	1,200,000	800,000	2,000,000
19						
20	1,500,000	1,000,000	2,500,000	1,500,000		1,500,000
21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22	1,500,000	1,000,000	2,500,000	1,500,000	1,000,000	2,500,000
23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24				1,500,000	1,000,000	2,500,000
25	1,500,000	1,000,000	2,500,000	1,500,000	1,000,000	2,500,000
26	1,500,000	1,000,000	2,500,000	1,500,000	1,000,000	2,500,000
27	1,500,000	1,000,000	2,500,000	1,500,000		1,500,000
28	1,500,000	1,000,000	2,500,000	1,500,000	1,000,000	2,500,000
29	1,500,000	1,000,000	2,500,000	1,500,000	1,000,000	2,500,000
30	1,500,000	1,000,000	2,500,000	1,500,000	1,000,000	2,500,000
31	1,500,000	1,000,000	2,500,000	1,500,000	1,000,000	2,500,000
32	1,200,000	800,000	2,000,000	1,200,000	800,000	2,000,000
33	1,200,000	800,000	2,000,000	1,200,000	800,000	2,000,000
34	1,200,000	800,000	2,000,000	1,200,000	800,000	2,000,000
35						
36	1,200,000	800,000	2,000,000	1,200,000	800,000	2,000,000
37						
38						
39						
40	900,000	500,000	1,400,000	900,000	500,000	1,400,000
41						
42						
43						
44						
45						
46						
47						
48						
총	33,400,000	18,200,000	51,600,000	34,000,000	16,400,000	50,400,000

※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한 밑거름(회비)이 필요합니다. ※

**2007년 용마장학회 결산내역**

**<수입부문>**

- 1. 이월금 : 19,456,578원
- 2. 이자수입금(법인세 포함) : 83,218,438원
- 3. 법인세환급금 : 9,845,870원
- 합계 : 112,520,886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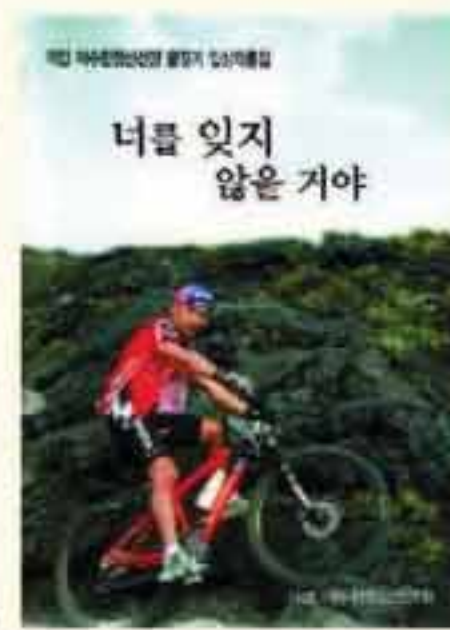
**<지출부문>**

- 1. 목적사업비 : 72,870,000원
  - 1) 장학금 - 31,600,000원
    - ① 졸업생 장학금
    - 졸업생 2명 : 1,000,000원

- ② 재학생 장학금  
1,2학년 22명 : 6,600,000원
- ③ 우수특기생 장학금  
특기생 8명 : 24,000,000원
- 2. 체육지원금(영고 야구부 용구 구입비 지원) - 6,710,000원
- 3. 경고야구코치 급료보조 - 23,500,000원
- 4. 경중야구감독급료보조 - 11,060,000원
- 2. 법인세 : 11,650,540원
- 3. 회계수수료, 주민주세 등 : 971,600원
- 4. 이월금 : 27,028,746원
- 합계 : 112,520,886원

**2001년 도쿄지하철 역에서 산화(散華)한  
의인 '이수현' (12회 이상대 동문아들) 7주기 추모집 발간**

지난 1월 26일 이성대 동문(12회)의 외아들인故 이수현 군의 산화 7주기를 맞아 추모집 「너를 잊지 않을 거야」가 발간되었다. 2001년 일본유학 중 도쿄의 한 지하철역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 취객을 구하려다 숨진 의인(義人) 이수현군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이수현 정신선양회(회장: 한경동)가 2005년부터 3년간 초, 중, 고생 글짓기대회에서 입상한 작품을 묶어 책으로 펴낸 것이다. 291쪽 분량의 책에는 학생들이 그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정신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지를 고민하면서 쓴 글 180편이 담겨 있다. 이수현 군의 연보와 생전의 일기 등의 의인의 인간적 면모와 체취를 느낄 수 있는 글과 애절함을 자아내는 이성대 동문내외의 글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선양회는 26일 오전 10시 부산 금정구 내성고에 있는 이수현의 의령기념비 앞에서 7주기 추모식을 갖고 이 추모집을 의인의 영정 앞에 봉정했으며 향후 추모집을 낙민초교, 동래중, 내성고 등 의인의 모교는 물론 부산지역 초중 고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모 · 교 · 소 · 식**

**경남중 제65회 · 경남고 제62회 졸업식**

경남중 · 경남고 2008학년도 졸업식이 각 학교별로 열려 상급학년 진학을 축하하였다. 경남중은 지난 2월 20일 오전 10시 30분 학교체육관에서 이정환 교장의 주재로 졸업식을 개최 372명의 용마를 배출했다(졸업자 총 3만 2천 649명). 교직원 · 재학생 · 학부모 동창회 관계자 등 1,4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졸업식에서 오성훈 군(종합최우수상)을 비롯한 235명의 졸업생이 대내외상을 수상했는데 동창회장상은 이승재, 운영위원장상은 최준형, 학부모회장상은 이신홍군이 수상했다.



경남고는 같은 달 21일 오전 11시 학교체육관서 김종석 교장(24회)의 주재로 제62회 졸업식을 거행, 졸업생 316명을 배출했다(졸업자 총 3만 31명). 이들은 졸업과 동시에 경남중 · 고동창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하게 된다. 이날 졸업식에는 교직원 · 재학생 · 학부모 동창회 관계자 등 1,500여명이 참석하였는데 학업 최우수상(박우용 · 인문계열, 이동현 · 자연계열)을 비롯하여 공로상(학생회 활동 27명, 계발활동 7명, 체육활

동 11명)과 교과우수 · 3년 개근 · 3년 정근 등의 대내상이 수여되었다. 대외상으로는 학교운영위원장상을 수상한 이동근 군과 박우용 군이 용마장학과 함께 동창회장상을 수상하였고 안진우, 박종식군이 경문회장상을, 최세진군이 한국중등교육협회 회장상을 이동현군과 이원종 군은 최성희비뇨기과병원장 장학금을, 김세현 군은 용마장학금을 각각 수상했다.

한편 경남고는 3월 4일 입학식을 가져 10개 반 370명의 신입생이 구덕산 품 안에 안기며, 경남중도 같은 날 입학식을 거행하여 8개반 283명의 학생이 3년 동안 새로운 학문의 동지에서 꿈을 펼쳐나가게 됐다.

**신의. 창의. 성실을 중시하는 기업  
자연과 인간을 생각하는 기업**

- ◎ APEC 정상회의장 공동시공사업입니다.
- ◎ 2006년 건설기업 대상수상

※ 모교 발전 결연 기업입니다.

대표전화 : 051-504-6698  
팩 스 : 051-504-6809

**주식회사 신태양건설**  
회장 박상호 (26회)  
부회장 남진현 (19회)  
기술사 이상철 (41회)

